쑨양 "빨리 경쟁에 뛰어들고 싶다"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7번째 선수권대회…자유형 200·400·800m·계영 출전
컨디션 조절·평정심 유지… 금지약물 복용 의혹 비난도

찬사와 의혹의 시선을 동시에 받는 수영 스타 쑨양(28·중국)이 '경쟁심'을 끌어올렸다.

그는 결전지 광주에 도착해 처음 훈련을 소화한 15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경쟁에 뛰어들고 싶다.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분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쑨양의 경기를 기대하는 수영 팬들도 많다. 쑨양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중 손꼽히는 스타 플레이어다.

쑨양은 "2007년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섰고, 이번이 7번째 대회다. 나보다 많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카틴카 호스주(헝가리)를 포함해도 1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매일 매우 높은 수준의 훈련을 했다. 그 덕에 7번째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쑨양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200m, 400m, 800m와 계영 등의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형 400m에서는 사상 최초의 4회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그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 홍콩, 선전 등에서 훈련했다. 강도 높은 훈련에 거의 울뻔했다"라며 "광주에서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등을 봤는데 나도 빨리 경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다른 종목 중국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건, 내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쑨양이 출전하는 경영 종목은 21일에 시작한다. 훈련량을 충분히 쌓은 쑨양은 남은 기간, 몸 상태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즈건 코치는 "우리가 광주에서 해야 할 건 휴식, 약간의 조정, 컨디션 조절, 건강 유지, 출전 준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쑨양은 경영 종목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두 차례만 더 수영장 훈련을 할 계획이다.

쑨양은 최근 금지약물 복용 의혹이 다시 불거져 호주 대표팀과 언론 등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이번 대회 경영 종목을 시작하면 비판 수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단 쑨양은 경쟁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떤 성적이 나오건, 쑨양을 향한 시선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경기를 닷새 앞둔 16일 오후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 경영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우하람·김영택 스프링보드 3m 예선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프링보드 1m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렀던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다시 스프링보드에 선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엿새째인 17일 한국 다이빙 선수 우하람과 김영택(경기체고)이 스프링보드 3m 예선 경기에 출전한다.

지난 14일 스프링보드 1m 결승에서 5차 시기 실수를 범하며 메달획득에 실패했던 우하람은 올림픽 정식종목인 스프링보드 3m에서 만큼은 메달획득을 노리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예선이 진행되고, 오후 3시 30분에 준결승을 거쳐 18일 결승에서 메달 주인공이 결정된다.

여수엑스포공원 오픈워터 수영경기장에서는 오전 8시 여성부 5㎞ 경기가 열린다. 반선재(광주시체육회)와 이정민(안양시청)이 출전한다. 반선재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여자 선수로는 첫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반선재는 주종목인 5㎞에서 출전 선수 60여명 가운데 30위권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남자 수구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30분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세르비아를 상대한다. 15일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1패를 떠안은 남자 수구대표팀은 세르비아와 격돌한다. 세르비아는 15일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 10-10으로 비기며 1무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염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는 16년 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무대를 밟은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팀이 자유종목(프리 루틴) 예선경기를 치른다.

백서연(건국대), 김지혜·이가빈·김준희(이상 동광고), 이재현·구제모(이상 마포스포츠클럽), 이리영(고려대), 이유진(백석대) 8명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틱 스위밍 팀은 지난 14일 17위에 그치며 팀 테크티컬(규정 종목)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자유종목에서만큼은 결선 진출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팀 프리 루틴 경기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선수들 사기 충천·관객 분위기 주도
시민서포터즈 '숨은 주역' 열띤 응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숨은주역으로 시민서포터즈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응원을 통해 선수들 사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경기장 등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대회 열기를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대회 개막 5일째인 16일 오전, 광주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수구경기장은 큰 함성으로 뒤덮었다.

유럽의 강호인 헝가리와 미주 강호 팀인 캐나다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서포터즈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진 것이다. 양 팀 응원을 위해 경기장에 나온 시민서포터즈는 700여명으로, 각종 응원 도구까지 동원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펼쳤다.

헝가리 팀을 응원한 서포터즈 정현철(52·광주 서구 서창동) 씨는 "수영 동호인으로서 광주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캐나다 팀을 응원한 최호준(금호중앙중 3년) 군은 "대회 성공을 돕는다고 생각해 서포터즈에 참여했다"며 "경기장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대회가 열린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서포터즈는 총 204개팀 1만16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수단 환영·환송에서부터 경기응원, 관광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국 선수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광주의 이미지를 전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참가국의 문화와 예절을 비롯해 경기종목,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시민서포터즈는 대회 첫날인 12일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등 4종목에 총 1900여명, 13일에는 5종목 1900여명, 14일에는 9종목 2600여명이 각 경기장을 찾아 자신들이 맡은 국가 선수들을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특별취재단=최권일 기자 cki@

'매직펜 수영모자' 이어 '테이프 유니폼' 망신

수영연맹 준비부족…후원사 계약 차질 시중 제품 공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 경기가 열린 지난 14일 광주시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영문 국가명 'KOREA'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은색 테이프를 붙인 유니폼 상의를 입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제 나라 이름을 단 유니폼을 착용했다.

우하람의 유니폼에서 테이프로 가린 것은 제조사 로고였다. 국가대표가 'KOREA' 없는 유니폼을 입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의류에 있는 A사 로고가 국제수영연맹(FINA) 광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결국, 우하람은 급히 테이프로 로고를 가린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 연맹은 부랴부랴 로고 자리에 천을 덧대고 그 위에 'KOREA'를 새긴 유니폼을 지난 15일 선수단에 지급했다.

연맹 관계자는 "새 용품 업체와 계약하려 했다가 무산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생긴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오픈워터 대표팀 백승호(29·오산시청)와 조재후(20·한국체대)는 지난 13일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경기장에서 남자 5㎞ 경기를 앞두고 수영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FINA 규정에 따르면, 오픈워터 선수들은 수영모에 국가명만 적을 수 있는데, 한국 선수들의 수영모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13일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에서 열린 오픈워터수영 남자 5km 경기에서 백승호가 매직펜으로 'KOREA'라고 쓴 모자를 쓰고 역영하고 있다.

태극기가 새겨진 대표팀 수영모는 대한수영연맹이 지급한 물품이었다. 연맹은 국제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수영모를 오픈워터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코치들은 급하게 지역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아무런 마크가 없는 수영모를 공수했다.

백승호와 조재후는 자원봉사자가 갖고 있던 매직펜으로 수영모에 'KOREA'라고 적은 뒤 급하게 경기에 출전했다. /연합뉴스

경 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010-3605-5000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현금 5억원이상 가능한 분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9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5200만원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다가구 주택 허가난 땅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음 4억4천
• 완도읍 망석리 산 자연녹지 3306㎡ 전망좋음 사찰적합 6천만원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농성초 옆 도로 2층 주택 대지 140㎡ 주택 153㎡ 주차장있음 2억4천
• 순천시 대대동 땅 324㎡ 건평 383㎡ 전세1억에 월150임대중 매도·교환 7억2천
• 대인동 버스도로 땅 709㎡ 건평 810㎡ 사옥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상업지 4668㎡ 아파트 적합 은행 4억8천 매도5천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장성토지 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5m 이격 편백숲, 꿈의 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